DOI: https://doi.org/10.28977/jbtr.2009.4.24.54

전치사 '알'(על)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배희숙*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은 원문의 뜻은 물론 원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를 전달해내는 총체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옮겨 놓기 위하여 번역자는 원문의 문학적 구조와 수사학적 기교, 미학적 장치들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요,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각각의 특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객관적 요소들을 잘 고려할 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게 번역에 반영된다는 데 있다. 가령 번역자는 원문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해석으로 인하여 본문의 오역 내지 반역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연구된신학에 근거하여 또는 후대에 드러난 역사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번역에서는 제일 먼저 본문 자체가 말하는 바를 찾아내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원천언어에 가장 잘 대응되는 단어를 찾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한 구절이 말하는 바는 그 구절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 구절의 의미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속한 단락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나아가 책 전체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심지어는 서로 모순된 의미를 산출하는 단어를 지닌 문장은 보다 큰 맥락에서 그 뜻을 파악하여 한 구절의 번역을 결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여러 역본에서 대립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열왕기상 23:29와 역대하 17:1 하반절을 예시로 큰 문맥에서 뜻을 결정하는 일이 번역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열왕기하 23:29에 나타난 '알'(על) 번역

전치사 '알'(על)은 대체로 위치(on, over, in front of)나 방향(to, toward)을 나타내지만, 적대적인 의미(against)도 지니고 있다.[1] 구체적인 예로 전치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구약학.

1)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ran.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알’(על)을 지니고 있는 열왕기하 23:29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BHS).

בְּיָמָיו עָלָה פַרְעֹה נְכֹה מֶלֶךְ־מִצְרַיִם עַל־מֶלֶךְ אַשּׁוּר עַל־נְהַר־פְּרָת
וַיֵּלֶךְ הַמֶּלֶךְ יֹאשִׁיָּהוּ לִקְרָאתֹו וַיְמִיתֵהוּ בְמְגִדּוֹ כִּרְאֹתֹו אֹתוֹ׃

이 구절에서 전치사 **על**은 두 번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것은 첫 번째의 것이다. 쾰러-바움가르트너는 HALOT에서 전치사 ‘알’(על)이 동사 ‘알라’(עלה)와 함께 쓰여 ‘ …를 도우러 올라가다’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예로서 유일하게 열왕기상 23:29를 들고 있다.[2]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번역을 위하여 흔히 주장하듯이 ‘알’(על)을 ‘엘’(אֶל)로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3] 이 단원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23:29의 ‘**עלה + על**’의 용법이 ‘ …를 도우러 올라가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겠다.

2.1. 번역본들

열왕기하 23:29는 주요 한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
왕하 23:29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

『공동』과 『공동개정』
왕하 23:29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에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강을 향하여 **출병하였다.** 요시아 왕은 …

『표준』과 『새번역』
왕하 23:29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

특이하게도 한글 역본들은 “왕을 도우려고” 또는 “왕을 치고자 하여” 라는 완

---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Boston-Köln: Brill, 2001), 825-827.

2) L. Koehler and W. Baumgartner, *HALOT*, 826b; 그러나 게제니우스 사전은 이 구절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Frants Buhl,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Göttingen-Heidelberg: Springer-Verlag, [17]1962), 585-589.

3) ‘어디로 올라가다’ 또는 ‘누구에게로 올라가다’의 의미가 동사 ‘**עלה**’와 전치사 ‘**אל**’의 구문이 사용된 용례는 창44:24; 45:9; 46:31; 출 3:17; 19:3; 24:13; 32:30에서 나타난다.

전히 대조적인 의미의 두 가지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현상은 다른 외국어 역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JPS In his days Pharaoh-necoh king of Egypt *went up against the king of Assyria* to the river Euphrates; …
KJV In his days Pharaohnechoh king of Egypt *went up against the king of Assyria* to the river Euphrates: …
NKJ In his days Pharaoh Necho king of Egypt *went to the aid of the king of Assyria*, to the River Euphrates; …
NLT …, Pharaoh Neco, king of Egypt, *went*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

EIN In seinen Tagen unternahm der Pharao Necho … einen Kriegszug *gegen den König von Assur* an den Eufrat. König Joschija …
LUT Zu seiner Zeit zog der Pharao Necho … *herauf gegen den König von Assyrien* an den Strom Euphrat.
SCH Zu seiner Zeit zog der Pharao Necho … *herauf wider den König von Assyrien* an den Euphratstrom.

BFC C'est pendant son règne que le Pharaon Néco, roi d'Égypte, conduisit son armée vers l'Euphrate *pour secourir le roi d'Assyrie*; …
TOB Durant ses jours, le Pharaon Néko, roi d'Égypte, *monta rejoindre le roi d'Assyrie* vers le fleuve Euphrate. …

히브리 동사 '알라'(עלה)와 함께 쓰인 전치사 '알'(על)은 한글 역본들에서는 적대적인 의미보다 우호적 의미가 지배적이고, 현대 서양 역본에서는 적대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4)]

언어별 역본	앗수르 왕을 '치려고'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한글역	『개역』과 『개역개정』	『공동』과 『공동개정』, 『표준』과 『새번역』
영어역	JPS, KJV	NKJ, NLT
독일어역	EIN, LUT, SCH	-
불어역	-	BFC, TOB

4) 이 외에도 *The New English Bible*도 적대적 의미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번역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인된 것일까? 초기역본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히브리 전치사 על은 주전 2세기경에 완역된 것으로 간주되는 칠십인역(Septuaginta)에서는 '에피'(ἐπὶ)로, 그리고 주후 4세기경에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Vulgata)에서는 '콘트라'(contra)로 옮겨져 있다. 헬라어 전치사 '에피'(ἐπὶ)는 목적격과 함께 쓰여 공간적으로는 '…로', '…를 향하여'(auf, nach, gegen, zu)의 의미를, 시간적으로는 '…까지'(bis zu)를 뜻한다.[5] 따라서 칠십인역이 여기서 반드시 '치러 갔다'는 적대적 의미를 전달해준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어역(MGK)[6]을 볼 때 분명해진다. 만약 적대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칠십인역의 번역자는 현대 그리스어역에서와 같이 '에피'(ἐπὶ) 대신 '카타'(κατὰ)를 썼을 것이다. 그에 반해 불가타가 제시하는 '콘트라'는 목적격과 함께 쓰여서 주로 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7] 불가타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번역 초기에 이미 전치사 '알'(על)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제 열왕기하 23:29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2.2. 열왕기하 23:29에 대한 해석의 역사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바로 느고가 "앗수르를 치고자" 즉 니느웨를 공격하고자 팔레스틴으로 진군하였으며 이를 유다 왕 요시야가 저지하다가 전사하였다고 믿었다. 유다는 앗수르의 봉신국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주군에 대한 충성으로 앗수르를 치고자 하는 바로 느고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에 지나지 않았다. 1923년 게드(C. J. Gadd)가 대영박물관에서 발견한 바벨론연대기[9]는 열왕기하 23:29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해와는 대립되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연대기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당시의 역사는 학자들이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주전 630년 앗수르바니팔이 죽자 신앗수르 제국은 비교적 급격하게 종말로 치닫는다. 이때 메대와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한다. 626년에

---

5) Wilhelm Gemoll, *Griechish-Deutsches Schul- und Hanswörterbuch*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97, 301.

6)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αὐτοῦ *ἀνέβη* ὁ Φαραὼνεχαώ, βασιλεὺς τῆς Αἰγύπτου, *κατὰ τοῦ βασιλέως τῆς Ἀσσυρίας* ἐπὶ τὸν ποταμὸν Εὐφράτην.

7) gegenüber; gegen, wider; gegen, im Widerspruch mit etw.

8) A. C. Welch, "The death of Josiah", *ZAW* 42 (1925), 255.

9) C. J. Gadd, (ed.), *The Fall of Nineveh. The Newly Discovered Babylonian Chronicle, No. 21, 901, in the British Museum*, 1923.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고[10] 바벨론은 620년에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나보폴라살은 616년에 전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앗수르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앗수르에게는 두 동맹군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의 스키타이 기마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제 26왕조의 프삼메티히 1세(주전 664-610년)였다. 스키타이가 메대군의 남하에 제동을 걸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메대는 스키타이를 수중에 넣었고,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앗수르 군대를 이기고 유프라테스까지 진군하여 앗수르의 도성까지 진군하고자 했다. 메대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앗수르를 돕고자 이집트의 프삼메티히 1세는 군대를 보낸다. 그러나 614년에 앗수르는 메대인의 손에 떨어지고, 이때 동맹을 체결한 메대-바벨론 연합군은 612년에 니느웨를 정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앗수르 제국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슈르우발리트 2세(주전 612-609년)는 하란에서 이집트군의 후원을 입으며 몇 년간 저항하였으나[11] 하란도 610년에 바벨론과 메대군에 의해 정복된다.

주전 609년, 앗수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주전 609-594)가 제 2년에 부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친앗수르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앗수르 제국의 남은 부분을 회복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고자 북쪽으로 진군하여 하란을 탈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느고는 앗수르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앗수르 제국을 붕괴시킨 메대와 바벨론과 전쟁하고자 진군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때 바로 느고의 속셈은 자신이 앗수르 제국 서쪽에 대한 상속자임을 보여 주는 데 있었을 것이다.[12]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열왕기하 23:29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주전 622-609년) 왕이 므깃도에서 느고에 맞서다가 전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제 막 앗수르로부터 벗어난 유다 왕 요시야는 앗수르의 쇠퇴를 유다가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고, 또 애굽의 팽창 정책 또한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앗수르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바벨론 연대기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군을 이끈 느고는 요시야의 저지를 뚫고 유프라테스를 넘어 하란으로 진군하여 성을 포위하였고, 아슈르우발리트 2세는 제국에 대한 왕권을 회복하였다. 그 후 느고는 아시아(즉 중동) 전체를 자신의 통치권에 넣었다고 한다.[13]

---

10) Klaas R. Veenhof, *Geschichte des Alten Orients bis zur Zeit Alexanders des Großen* (ATD 11)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2001), 276.

11) Herbert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ATD 4/2)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2}1995), 372-374, 388-389.

12) Klaas R. Veenhof, *Geschichte des Alten Orients bis zur Zeit Alexanders des Großen*, 280.

13) 왕하 23:33-35는 바로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느고는 요시야 사후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유

이렇게 바벨론 연대기가 새롭게 밝혀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열왕기하 23:29는 느고가 앗수르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러' 올라 간 것이라고 번역되어야 옳다. HALOT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열왕기상 23:29에서 עלה와 함께 쓰여서 ' …를 도우러 올라가다'를 의미한다고 따로 명기한 듯하다.[14]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전치사 על이 적대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호적인 뜻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3. 문제 제기

열왕기하 23:29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상반된 번역이 어디서 연유하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느고가 "앗수르를 치고자" 갔다는 번역은 히브리 전치사 על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온 반면, "앗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갔다는 번역은 분명히 역사적 지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15] 후자의 번역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자보다 옳은 번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번역이 과연 잘된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번역은 "원문에 가장 가깝게 재생산" 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16] 그렇다면 저자가 기록한 것과는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번역을 원문과 동등한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는 시대착오적인 기록과 사실(史實)에 배치되는 역사 기록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바른 번역이란 역사적 사실을바르게 제시하는 번역이 아니라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열왕기하 23장을 읽다보면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죽음이 열왕기 보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열왕기 저자는 결코 당시 애굽의 역할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았을 것이다.[17] 그에게는 이집트가 앗수르를 "치고자" 하였든 "도우려" 하였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상황이었다. 요시야가 애굽의 출정 소식을 듣고 므깃도로 갔다가 거기서 뜻하지 않게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운다.

14) 각주 2)를 보라.

15)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The Anchor Bible 11 (Garden City: Doubleday, 1988), 291.

16) 김성희,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pecial Issue, Evaluation and Translation의 서평", 「성경원문연구」 22(2008, 4), 204 참고.

17)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291.

고자 했던 것이다.[18] 저자는 여기서 앗수르에 대한 이집트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은 열왕기를 저본으로 삼아 같은 역사를 재조명하여 다시 기록한 역대기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19] 열왕기하 23:29에 대조되는 역대하 35:20을 보자.

אַחֲרֵי כָל־זֹאת אֲשֶׁר הֵכִין יֹאשִׁיָּהוּ אֶת־הַבַּיִת עָלָה נְכֹו
מֶלֶךְ־מִצְרַיִם לְהִלָּחֵם בְּכַרְכְּמִישׁ עַל־פְּרָת וַיֵּצֵא לִקְרָאתוֹ יֹאשִׁיָּהוּ׃

『개역』
대하 35:20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개역개정』 대하 35:20 이 모든 일 후 …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표준』과 『새번역』
대하 35:20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 ,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 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공동』과 『공동개정』
대하 35:20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바로 잡은 다음이었다. … 느고가 유프라테스강 가 **가르그미스** 전투에 **참가하려고** 출병하였다. …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열왕기에서의 '알-멜렉 앗슈르 알 네하르-페라트'(עַל־מֶלֶךְ אַשּׁוּר עַל־נְהַר־פְּרָת)는 역대기에서 '레힐라헴 베카르케미쉬 알-페라트'(לְהִלָּחֶם בְּכַרְכְּמִישׁ עַל־פְּרָת)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왕기에 따르면 바로 느고는 앗수르 왕을 대상으로 유브라데로 올라갔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앗수르 왕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장소 갈그미스가 나타나고 전치사 '알'(על) 대신 '브'(ב)가 나타난다. 따라서 전치사구 '베카르케미쉬'(בְּכַרְכְּמִישׁ)는 "갈그미스에서"를 뜻한다. 주동사 '알라'(עָלָה)는 '전쟁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לְהִלָּחֶם)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와 상관없이 '전쟁하려고 올라가다'

18) 요시야의 개혁과 뒤이은 그의 죽음이 신명기역사서의 편집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명기역사서 연구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F. M. Cross,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F. M. Cross, ed.,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73), 274-289를 참고하라.

19) 연구에 따르면 열왕기는 포로기에 형성되었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주전 4세기경에 기록되었다.

로 번역된다.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쟁하려고" 올라간 것이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알-페라트'(עַל־פְּרָת)의 전치사 '알'(על)은 갈그미스의 위치를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갈그미스가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치사 עַל을 동사 עָלָה에 걸치는 것으로 본다면, 전치사 עַל은 방향을 나타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역대기 저자가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46:2에 따르면 갈그미스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격전지로서, 바로 이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 패함으로써 시리아-팔레스틴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20] 문제는 갈그미스 전투가 여호야김 제 4년(주전 605년), 즉 요시야 왕 사후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면 역대하35:20에서 '갈그미스'는 바벨론을 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는 여기서 열왕기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에 맞춰 수정하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하 23:29의 전치사 עַל을 적대적인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써 또 다른 역사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안으로 '갈그미스'를 달리 설명한다 해도 역사성의 문제는 가시지 않는다. 말라마트(A. Malamat)의 주장에 의하면 바벨론과 그 동맹군에 의해 쫓겨난 앗수르 왕 아슈르우발리트는 주전 610년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이미 갈그미스에 새 수도를 세웠다는 것이다.[21]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역대하 35:20의 갈그미스는 앗수르를 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집트의 느고는 앗수르와 전쟁하기 위하여 올라간 셈이 되므로 역사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기의 저자에게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이 역사 기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역대기 저자도 열왕기 저자와 마찬가지로 느고의 역할보다는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신학적 질문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22] 이로써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번역보다는 오히려 저자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의 관찰을 통해 열왕기하 23:29의 'עלה + על' 구문을 "도우려고 올라가다"는 의미로 옮기는 것은 옳은 번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서에서 동사

---

20) 왕하 24:7 참고.

21) A. Malamat, "Josiah's Bid for Armageddon: the Background of the Judean-Egyptian Encounter in 609 B.C.", *JANES* 5 (1973), 267-78. H.G.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C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7), 410에서 재인용.

22) Hee-Sook Bae, *Vereinte Suche nach JHWH. Hiskianische und Josianische Reform in der Chronik* (BZAW 35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29-30.

‘알라’(‘עלה’)가 ‘ …를 도우러 올라가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나타나는데, 이 의미는 동사 ‘아자르’(עזר)의 부정사 형태(לַעְזֹר)로써 그 뜻이 분명해지고 있다(수 10:33). 필자가 보기에 열왕기하 23:29의 עלה와 전치사 על의 구문은 중립적인 의미로 옮기는 것이 원문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번역이다. 따라서 열왕기하 23:29의 한글번역본에서“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또는 “앗수르 왕을 도우러”의 구문은 ‘앗수르 왕에게로 올라가므로’라고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23]

> 왕하 23:29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 있는 앗수르 왕에게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

이러한 번역을 다른 현대어 역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went up to the king of Assyria” (ESV, NRS, NAB)
> “was advancing to meet the king of Assyria” (NJB)
> “zum König von Assur hinauf” (ELB)
> “monta vers le roi d'Assyrie” (FBJ)

2.4. על과 אל의 호환 가능성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 고대 역본에서 이미 히브리어 전치사 ‘알’(על)이 적대적인 의미로 번역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일찍이 히브리어 전치사 על 이 일차적으로는 적대적 의미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위의 수정된 번역을 위하여 열왕기하 23:29에서 전치사 ‘알’(על)을 ‘엘’(אל)로 대체해야 하는 것일까?[24] 전치사 על과 אל이 혼용되는 다른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על 의미의 외연 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성경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야차’(יצא)에 전치사 על 또는 אל이 뒤따르는 예를 보여준다. 이 구문은 문자적으로 ‘ …로 나아가다’를 뜻한다.

> הַשֶּׁמֶשׁ יָצָא עַל־הָאָרֶץ וְלוֹט בָּא צֹעֲרָה׃ 창 19:23
> The sun had risen on the earth …

---

23) 전쟁의 문맥이지만 “…를 향하여 올라가다”로 번역된 곳으로 왕하 12:17; 17:3 참고.

24) 왕하 23:29에 대한 본문비평에서 전치사 ‘על’은 자주 ‘אל’로 대체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Francis Brow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1979), 757a;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291;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389, 각주 74 참고.

창 41:45 וַיֵּצֵא יוֹסֵף עַל־אֶרֶץ מִצְרָיִם׃
And Joseph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왕상 8:44 כִּי־יֵצֵא עַמְּךָ לַמִּלְחָמָה עַל־אֹיְבוֹ בַּדֶּרֶךְ אֲשֶׁר תִּשְׁלָחֵם
If your people go out to battle against their enemy …

왕하 12:13 וּלְכָל אֲשֶׁר־יֵצֵא עַל־הַבַּיִת לְחִזְקָה׃
as well as for any outlay for repairs of the house.

시 81:6 עדות בִּיהוֹסֵף שָׂמוֹ בְּצֵאתוֹ עַל־אֶרֶץ מִצְרָיִם שְׂפַת לֹא־יָדַעְתִּי אֶשְׁמָע׃
… when he went out over the land of Egypt. …

에 1:17 כִּי־יֵצֵא דְבַר־הַמַּלְכָּה עַל־כָּל־הַנָּשִׁים
For this deed of the queen will be made known to all women …

열왕기하 24:12 상반절에서 이 표현은 ‘항복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왕하 24:12a וַיֵּצֵא יְהוֹיָכִין מֶלֶךְ־יְהוּדָה עַל־מֶלֶךְ בָּבֶל הוּא וְאִמּוֹ וַעֲבָדָיו וְשָׂרָיו וְסָרִיסָיו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항복하다’의 의미가 ‘**יצא** + **על**’의 구문이 아니라 동사 ‘야차’(**יצא**)에 전치사 ‘엘’(**אל**)이 뒤따라 나오는 형태로 몇 차례 등장한다.

렘 38:2 וְהַיֹּצֵא אֶל־הַכַּשְׂדִּים (יִחְיֶה) [וְחָיָה]
but those who go out to the Chaldeans shall live; …

렘 38:17 אִם־יָצֹא תֵּצֵא אֶל־שָׂרֵי מֶלֶךְ־בָּבֶל
If you will only surrender to the officials of …

렘 38:18 וְאִם לֹא־תֵצֵא אֶל־שָׂרֵי מֶלֶךְ בָּבֶל
But if you do not surrender to the officials of …

‘항복하다’는 의미로 ‘**יצא** + **על**’의 구문이 열왕기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긴 하지만[25] 그 의미로 **יצא**에 **על**과 **אל**이 달린 형태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은 두 전치사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3:29의 **על**을 꼭 **אל**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26]

다음으로는 전치사 ‘**על**’이 보다 긍정적 의미를 지닌 예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

25) Oded Lipschits,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i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55.

26) L. Koehler and W. Baumgartner, *HALOT*, Vol. 1, 826b. **על**이 **אל**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서 대상 12:23(**בוא**), 대하 15:4(**שוב**), 대상 13:2(**שלח**), 느 6:17(**הלך**)을 HALOT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עלה**에 전치사 **על**이 따르는 구문도 나타난다(창 38:12).

3. 역대하 17:1 하반절

역대하 17:1의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BHS).

וַיִּמְלֹךְ יְהוֹשָׁפָט בְּנוֹ תַּחְתָּיו וַיִּתְחַזֵּק עַל־יִשְׂרָאֵל׃

이 구절은 한글 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개역』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개역개정』
여호사밧이 …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표준』과 『새번역』
여호사밧이 …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공동』과『공동개정』
… 여호사밧이 …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에 강경정책을 폈다**.

위 여섯 역본들을 비교해볼 때 이 구절에서도 번역은 열왕기하23:29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보여주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 용어의 차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27]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모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호사밧 왕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를 전해주는 반면, 『새번역』과『표준』, 그리고『공동』과 『공동개정』의 번역은 위의 두 번역본과는 완전히 상반된 뜻으로 해당 구절을 풀어놓고 있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에서 '이스라엘'이 보호의 대상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네 번역본에서는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상대로 나타난다. 후자에 따르면 여호사밧의 강화정책의 목적은"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왕국 '유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상반된 번역은 여호사밧 왕이'이스라엘'을 방어하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로부터 유다 왕국을 방어하였는지 독자를 혼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현대 역본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영역성경은 '알-이스라엘'(עַל־יִשְׂרָאֵל)을 한결같이 "*against* Israel"로 옮겨[28] '이스라엘'이 유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수 역본에서만[29] 긍정적으로 번역되어 있다. 열왕기하 23:29

27) '방비'란 "적의 침공이나 재해 따위를 막을 준비를 함, 또는 그 준비"를 뜻하고, '방어'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음"을 의미한다. 동아출판사 편집국, 이기문 감수, 『새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5), 887, 889.

28) ASV, BBE, ESV, GNV, KJV, NAB, NIV, NJB, NKJ, NLT 등.

에서 본 바와 같이 칠십인경은 히브리 전치사 'על'을 '에피'로, 불가타는 '콘트라'로 옮겨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연유되는 것일까? 동사 '하자크'(חזק)의 '히트파엘' 형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다'는 의미의 재귀동사로서 목적어 없이 사용된다.[30] 위의 절에서 '알-이스라엘'(עַל־יִשְׂרָאֵל)이라는 전치사구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고 있다.[31] 이로 보아 상반된 번역은 동사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전치사 '알'(על) 때문임이 분명하다. 한글 번역이 보여주듯이 על은 상반된 의미로 번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어서 번역자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본문의 뜻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치사 על을 번역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인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על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

17:1 하반절은 가장 흔하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유다를 강화하였다는 뜻으로 번역된다.[32] 이것은 분명히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다는 역사적 정황과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의 왕이라는 본문의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적대적인 번역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해놓고 볼 때 본 구절은 앞뒤 문맥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왕조와 사돈 관계를 맺었으며(대하 18:1) 길르앗 라못 정벌을 위해 동맹하였다(18:28-34). 이후에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다(20:35-36). 여호사밧 이야기의 큰 맥락에서 읽을 경우 1절에서 '알 이스라엘'(עַל־יִשְׂרָאֵל)을 대립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본문의 큰 맥락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 점을 인식한 루돌프(W. Rudolph)는 "그[여호사밧]가 이스라엘을 강화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사밧 왕이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 북왕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17:2) 여기서의 "이스라엘"을 남 왕국 유다로 해석하였다.[33] 루돌프에 따르면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썼지만 실제 의미한 것은 '유다'였다는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순수하게 유다왕국을 방비하였

29) BFC, EIN, ELB, LUT, SCH.

30)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개역개정』). "이스라엘이 힘을 내여"(창 48:2); "스스로 용기를 내여"(삿 20:22);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대하 12:13); "강성하며"(대하 13:21); "세력을 얻은 후에"(대하 21:4, 27:6), "점점 강하여졌더라"(대하 27:6); "힘을 내어"(대하 32:5).

31) 삼상 30:6 "야훼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다".

32) S. J. De Vries, *1 and 2 Chronicles*, FOTL 11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89), 310. R. B. Dillard, *2 Chronicles*, WBC 15 (Waco/Texas: Word Books, 1987), 133.

33) W. Rudolph, *Chronikbücher*, HAT I/21 (Tübingen: Mohr, 1955), 249-250; 참고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IC (London: Grand Rapids, 1982), 281.

다는 말이다.[34]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이것으로써 자신의 '이스라엘' 사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35] 역대기 신학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여호사밧이"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치사 על은 종속되는 동사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알 이스라엘'(עַל־יִשְׂרָאֵל)에서 전치사 '알'(על) 자체가 지닌 의미를 역대하 1:1 상반절을 통해 확인해보자.

וַיִּתְחַזֵּק שְׁלֹמֹה בֶּן־דָּוִיד עַל־מַלְכוּתֹו

『개역』과 『개역개정』
대하 1: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표준』과 『새번역』
대하 1: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공동』과『공동개정』
대하 1: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굳혔다.

이 구절에서 전치사 '알'(על)은 절대로 적대적인 의미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예는 על의 의미가 동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치사 ע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본문의 뜻을 잘 파악할 때 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23:29와 역대하 17:1 하반절에 대한 번역의 적합성을 재고하였다. 여러 성경들을 대조해 보면 각각의 본문에 대한 번역은 내용적으로 상반되어 있다. 이것은 전치사 '알'(על)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열왕기하 23:29에서 전치사 על이 동사 '알라'(עלה)와 함께 쓰였을 때 적대적인 의미로 번역된 것은 이미 초기 역본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20세기 바벨론 연대기의 발견으로 23:29의 배경이 되는 역사가 상세히 드러남으로써 23:29의 전치사 על과 동사 עלה가 함께 쓰인 구문은 이전과는 정반대 되는 의미로 번역되었

34) 이러한 방향의 해석은 S. Japhet, *2 Chronik*, HThKAT 16 (Freiburg: Herder, 2003), 214에도 나타난다.
35) 역대기 저자의 '이스라엘 사상'에 대하여는 필자의 졸고, 제 4장 특히 44-116 쪽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애굽의 느고가 "앗수르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유브라데로 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렇게 수정된 번역은 옳다. 그러나 역사적 지식이 반영된 번역을 바르게 번역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번역은 원문을 그에 가장 가깝게 재생해 내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본문을 역사적 사실에 맞춰 번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위해서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열왕기하 23:29가 속한 맥락에서 저자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의 죽음을 보도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문맥을 고찰할 때 이 구절의 전치사 על은 중립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필자는 애굽의 느고가 앗수르를 치거나 또는 돕기 위하여 유브라데로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브라데로 올라갔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미 여러 현대 역본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을 위해 흔히 전치사 '알'(על)을 '엘'(א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나는 데 있어 전치사 על과 אל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예를 보여주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전치사 על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가능성은 없을까? 역대하 17:1 하반절은 전치사 על이 동사에 따라 긍정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사 '하자크'(חזק)의 히트파엘 형은 전치사 על과 함께 쓰이곤 하는데 이 때는 결코 부정적으로 번역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치사 על을 번역할 때 큰 맥락에서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또 그 전치사가 종속된 동사를 주의하며 전치사 על을 번역해야 한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왕하 23:29, 대하 35:20, 대하 17:1하, 전치사 על.
Bible Translation, 2Ki 23:29, 2Ch 35:20, 2Ch 17:1a, Preposition על.

<참고문헌>(References)

동아출판사 편집국, 이기문 감수,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Brown, Francis,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1979.

Buhl, Frant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Göttingen-Heidelberg: Springer-Verlag, 1962.

Gemoll, Wilhelm, *Griechish-Deutsches Schul- und Hanswörterbuch*,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97.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ran.,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Leiden-Boston-Köln: Brill, 2001.

김성희,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pecial Issue, Evaluation and Translation의 서평", 「성경원문연구」 22 (2008. 4), 203-220.

Bae, Hee-Sook, *Vereinte Such nach JHWH. Hiskianische und Josianische Reform in der Chronik* (BZAW 35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Cogan, Mordechai and Tadmor, Hayim, *II Kings* (AB 11), Garden City: Doubleday, 1988.

Cross, F. M.,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ross, F. M., ed.,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73, 274-289.

De Vries, S. J., *1 and 2 Chronicles* (FOTL 11),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89.

Dillard, R. B., *2 Chronicles* (WBC 15), Waco/Texas: Word Books, 1987.

Donner, Herbert,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ATD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1995.

Gadd, C. J., (ed.), *The Fall of Nineveh. The Newly Discovered Babylonian Chronicle, No. 21, 901, in the British Museum*, 1923.

Lipschits, Oded,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i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Veenhof, Klaas R., *Geschichte des Alten Orients bis zur Zeit Alexanders des*

Großen (ATD 11),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2001.
Welch, A. C., "The Death of Josiah", *ZAW* 42 (1925), 255-260.
Williamson, H. G. M., *1 and 2 Chronicles* (NC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7.

<Abstract>

Inquiry into the Translation of the Sentence with the Preposition על : in 2Kings 23:29 and 2Chronicles 17:1b

Prof. Hee Sook Ba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ropriateness of translating the preposition על shown in 2 Kings 23:29 and 2 Chronicles 17:1. Many Bible Versions present the translations of each text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their content. This can be ascribed to the contradictory understanding of the preposition על. It was already in the early translations that the preposition על was translated in a hostile meaning when it was used with the verb עלה in 2 Kings 23:29. But with the discovery of Babylonian Chronicle in the twenties century, the phrase עלה with על became translated in the opposite meaning respectively, with the history of background of 23:29 being revealed. It showed that Paraoh-necho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aid of the king of Assyria to the river Euprates, not against him. Considering it historically, the modified translation is correct. But can the translation influenced by the historical knowledge be considered adequate?

Translation is to reproduc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the original. Therefore it should be avoided to translate the tex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facts. The intention that the author wants to include should be figured out first for the translation close to the original text. In the text 2 Kings 23 the author puts more emphasis on the report of the death of Josia, not on that of the precise historical fact in the context containing 2 Kings 23:29. Therefore,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reposition על corresponding to this phrase should be translated in the neutral meaning. I am to propose that it be more adequate to translate the corresponding phrase as just going up to the river Euphrates not as going up against or to the aid of the king of Assyria. Such translations are already shown in other modern translations.

However there is an assertion that the preposition על should be replaced by אל for such kinds of translation. But this seems not necessary because there are many usages using על together with אל in the Bible in order to present the same meaning.

Then is there no possibility of the preposition על being translated in a more

positive meaning? 2 Chronicles 17:1b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preposition על can be translated in a positive meaning when used along with the verb with which it is used. The hithpael of the verb חזק is often used with the preposition על. In this case, it can never be translated in a negative meaning.

For this very reason, the meaning of the preposition על should be comprehended in a larger context and translated giving attention to the subordinate verb.